

死 論

— 삶의 完成과정이라는 價値觀을 中心으로 —

金 仁 洛

目 次

I. 緒 論

II. 本 論

1. 人間의 壽命
2. 삶의 다섯과정
3. 죽음은 삶의 完成과정
4. 죽음에 對한 恐怖
5. 죽음에 對한 醫療

III. 結 論

IV. 參考文獻

I. 著 者 論

살아 있는 者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禁忌로 여겨 왔다. 이는 삶은 가치가 있어서 무조건 연장되어야 하지만, 죽음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므로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의한 것이다.

西洋醫學에 있어서도 人工呼吸器나 臟器移植 등의 方法으로 죽음을 저지하는데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것이 마치 醫療人의 有能함을 판단하는 척도 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한편 東洋醫學의 根幹이 되는 陰陽觀에 의한다면 陰과 陽은 서로 對立하면서도 보충하는 對待의인 관계이고, 陰과 陽은 서로 다른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優劣은 없다. 또한 純陰純陽은 存在할 수 없으니, 陰이 없으면 陽도 存在할 수 없다.

이로써 生死를 본다면 죽음은 삶을 파괴하는 面도 있지만 보충해주는 面도 있으며 죽음은 完全히 저지된다면 삶도 없게 된다. 그리고 東洋醫學은 五行과 같이 삶을 다섯과정으로 보아서 죽음도 삶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죽음이란 단순히 삶을 파괴하는 순간적 사건이 아니고 삶을 完成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잘 사는 것이 죽음을 편히 하는 것이지만 反對로 죽음을 잘 맞이 하므로써 삶을 完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最近에 대두되고 있는 무의미한 삶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갖게하자는 安樂死나 臨終간호와 통하는 面이 있고 죽음에 대한 醫療에 있어서 보다 건전한 方向을 제시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完成과정이라는 가치관을 中心으로 이의 근거는 어떠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이것에 의하면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지, 臨床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I. 人間의 壽命

韓醫學에서는 人間을 人間 단독으로 설정하지 않고 自然과 관련해서 보고있다. 『黃帝內經：寶命全形論』에 의하면 「하늘은 덮고 땅은 실어서 萬物이 모두 갖추어졌으나 人間보다 貴한 것은 없다. 人間은 하늘과 땅의 氣로써 生하고 四季節의 變化法則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人間은 땅에서 생겨나고 목숨을 하늘에 매달아 놓았으니(懸命於天) 하늘과 땅의 氣가 합한것을 이룸하여 人間이라고 한다」¹⁾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목숨을 하늘에 매달아 놓았다”는 말은 마치 하늘이 意志를 지니고 있어서 人間의 목숨을 左右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之節藏象論의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란 말과 같이 天地가 主語로 되는 形式을 취하더라도 人間이 主體가 되어 能動的으로 五氣를 숨쉬고 五味를 먹는 것이지 天地가 意志를 지니고서 人間을 먹이고 숨쉬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人間이, 一方的으로 天地의 氣味를 얻는 것은 아니고 人間이 排泄하는 呼氣, 大便, 少便, 등이 天地를 먹여주는 一面도 있다. 다시 말하면 天地로 代表되는 自然과 人間은 '天地人三才'라고 하듯이 서로 보충해 주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懸命於天'이란 단순히 하늘이 主體的으로 人間의 목숨을 左右한다는 것이다. 『上古天真論』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술로써 미음을 삼고, 虛妄한 것으로써 一常的인 것으로 삼으며, 술에 의하여서 犯房하고 慾心으로써 精을 枯竭시키고, 탐욕으로써 眞氣를 흠어 버린다. 가득 한 것을 지니고 있을줄 모르고,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快樂에만 힘쓰고, 참된 삶의 즐거움에는 거슬리며 起居에 節度가 없어서 50며, 快樂에만 힘쓰고, 참된 삶의 즐거움에는 거슬리며 起居에 節度가 없어서 50歲도 못되어서 衰弱해진다.」²⁾ 여기에서 삶의 즐거움(生樂)'이란 內經의 道家계열 이므로 自然으로 돌아가 自然의 法則대로 살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다면 生有可能한 年齡은 대략 100歲 또는 120歲로 보고 있다. 道家的 入場에서는 이러한 自然壽命을 모두 누리도록 하는데 醫學의 목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儒家的 入場에서는 天地란 人間의 도움을 받아야만 完成될 수 있는 未恰한 것이므로 人間이 理想으로 삼는 世界는 自然世界가 아니고 天地人이 함께 創造해 가는 世界 이룰때면 人間中心으로 再創造된 世界³⁾가 되므로 비판의 여지는 있다.

2. 삶의 다섯과정

人間의 삶은 生, 長, 壯, 老, 死의 다섯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出生때 부터 20歲까지는 長의 과정이고, 20歲부터 50세까지는 壯의 과정이며 그 이후는 老의 과정이다⁴⁾ 生과 死도 순간적인 사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과정으로 把握한다. 生의 과정이란 受精에서 부터 出生까지이다. 우리들이 나이를 셀때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하는것도 이와 관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受精卵을 하나의 完成된 人間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四季節의 變化法則으로써 이루어 진다」라고 하듯이 人間은 태어나는 것으로서 完成되는 존재가 아니고

完成을 목표로 하고, 完成되어져 가는 存在이다. 受精卵은 단지 이러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胎內에서는 十月養胎說로 설명하듯이 人間의 몸과 마음이 갖추어지고 出生후에도 八蒸十變으로 五臟六腑가 충실해진다. 죽음도 生, 長, 壯, 老, 死와 같이 과정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과정조차도 이미 삶의 한 과정이므로 당연히 醫學의 對象이 된다. 그러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삶의 完成 과정인가? 破滅과정인가? 이러한 질문은 바로 人間의 完成은 삶의다섯 과정 중 가운데 단계인 “壯”인가 아니면 죽음의 과정에서 인가 라는 것이다. 이를 論하기 위하여 먼저 죽음의 前단계인 “老”의 과정을 살펴보자.

3. 죽음은 삶의 完成과정

『靈樞·天年第五十四』에서는 人間의 壽命을 100歲로 보고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

- 『50歲부터 肝氣가 衰弱해지고 肝葉은 엷어지면 膽汁은 줄어 들고 눈이 어두어지기 시작한다.
- 60歲부터 心氣는 衰弱해지고 근심과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氣血은 衰弱해 지므로 늙기를 좋아한다.
- 70歲부터 脾氣는 虛해지고 皮膚는 마른다.
- 80歲부터 肺氣는 衰弱해지고 魄이 몸을 떠나므로 말을 하는데 실수를 잘한다.
- 90歲에는 腎氣가 마르고 肝心脾肺 四臟의 經脉이 空虛해진다.
- 100歲에는 五臟이 모두 虛해지고 神氣가 모두 사라져서 몸만 홀로 남아 삶을 끝마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늙는다는 것은 건강이 나빠져 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둘째, 늙는다는 것은 젊음보다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먼저 건강이란 단순히 五臟六腑를 비롯한 身體機能이 最大로 활동하는 때라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젊음이 특히 男子는 32歲, 女子는 28歲 때가 건강의 最高點이고 그 이전은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과정이며, 그 이후는 나빠져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기준을 人生의 어느 한 시점에 고정시킬 수는 없다. 건강이란 절대치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나이에 따라 多樣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예로써 五臟을 살펴본다면 五臟은 季節에 따라서 그 活動量이 달라진다.

肝은 봄에 일년의 평균치 보다 많이 活動하지만 가을에는 평균치 이하로 活動한다.

이를 보고서 봄에는 肝이 건강한 것이고 가을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50代에 肝氣가 衰弱해지고 눈이 어두어진다고 해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50代에는 50代의 건강기준이 있으니, 肝氣가 衰弱해지는 것이 바로 건강의 기준이다.

만약 50代에도 肝이 旺盛하여 눈이 밝다면 이는 두가지로 解釋할 수 있다.

하나는 남들 보다 肝氣가 旺盛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肝이 必要이상 으로 活動하는 過勞상태인데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類似한 言及을 『上古天眞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男子는 64歲, 女子는 49歲 이후에도 精力이 旺盛하여 生殖能力이 있는 者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64歲, 49歲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50代에도 肝의 活動量이 줄지 않고 눈이 밝다면 이를 ‘老益壯

이라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肝의 活動을 억제시킬 必要가 있다. 그렇지 아니 한다면 人生의 全過程을 통하여 活動해야 할 肝은 도중에 지치고 機能이 定止 되어 他四臟이 아무리 機能을 正常的으로 發하더라도 한 個人의 生命은 終息될 것이다.

두번째, 늙음은 늙음 나름대로 젊음의 갖지 못하는 가치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文化圈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니, 이는 自然環境의 差異에 의하여 生活方式이 다름에 기인한다고 본다. 일찌기 벼농사를 지었던 東洋에 있어서는 가을을 結實의 季節로 보았다. 늙는다는 것은 벼가 익는 것과 같이 人生이 完成되어 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羊을 기르던 遊牧民族인 西洋은 가을을 'Fall' 즉 낙엽이 떨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 늙는다는 것은 羊의 고기와 털과 젖의 生産量과 品質이 줄어 가듯이 人生또한 가치가 없어져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東洋은 敬老思想이 發達할 수 밖에 없었다.

周易의 離卦·九三 爻辭는 이러한 思考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가 西山에 어둑어둑 해진다. 즐겁게 장구를 치면서 노래 불러라, 그렇지 아니면, 이는 늙은이가 늙어감을 한탄하는 것이니 凶하다.』⁵⁾ 늙음의 과정에서는 늙음이란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늙음은 삶의 完成되어 가는 것이지 파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같은 論理가 성립된다. 正常的인 상태에서 죽음이란 生理的이고 삶의 完成 과정이며 슬프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앞에서 引用한 『千年篇』의 마지막을 보자 「100歲에는 五臟이 모두 虛해지고, 神氣가 모두 사라져서 몸만 홀로 남아 삶을 끝마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韓醫學에서 목표로 하는 가장 完全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一部分만이 먼저 虛弱해져서 한 個人의 生命이 終息되는 것이 아니고 生, 長, 壯, 老, 의 과정을 完全히 마치고서 죽음을 맞이 하는 것이다. 韓醫學에서 養生이란 결국 늙어야 할 때 늙고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지, 不老長生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大地는 나에게 몸을 부여하여 태어나게하고, 살아 가게 함으로써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어가게 함으로써 나를 한가롭게 하고 죽어가게 함으로써 나를 편히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나의 죽음을 잘 맞이 하는 길이다.」⁶⁾

4. 죽음에 對한 恐怖

正常的인 죽음은 슬프지도 않고 恐怖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를 五行으로 說明해 보자. 肝, 心, 脾, 肺, 腎은 各 各 怒, 喜, 思, 恐을 主管한다고 할 때 이는 正常的인 상태가 아니라, 病的인 상태 즉 太過, 不及에서 太過의 경우이다.⁷⁾

正常的인 일 때라면 五臟은 감추어져 드러내지 않는(藏而不瀉) 本然의 作用으로 七精이 걸로 드러나지 아니한다. 運氣에서 太過는 正常보다 일찍 오는 것을, 不及은 正常보다 늦게 오는 것을 뜻하며, 肝, 心, 脾, 肺, 腎은 各各 五行의 木, 火, 土, 金, 水에 해당하므로 이를 一生의 과정으로 확대 한다면 生, 長, 壯, 老, 死의 과정과 통한다.

그러므로 늙음의 과정이 늙어야 할 때 보다도 일찍 온다면 슬픈 것이지만 제 때에 온다면 슬프지 아니하다. 죽음의 과정도 죽어야 할 때 보다도 일찍 온다면 恐怖의 대상이 되나 제 때에 온다면 恐怖의 對象은 아니다. 『論語』의 「朝聞道, 夕死可」라는 말도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니 이는 道家의 自然壽命을 누린다는 목적과는 달

리 儒家的인 入場에서의 目的이 完成되고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이다.

5. 죽음에 對한 醫療

지금까지 죽음에 對하여 醫學이 갖는 理想을 살펴 보았다. 醫學에 있어서는 治療 醫學보다 豫防醫學이 重要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養生으로서 醫師와 患者가 二分的으로 存在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現實로는 정상적인 죽음, 生理的인 죽음을 맞이 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多小間의 差異가 있을 지라도 大部分의 사람들은 不完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不完全한 삶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眞藏脉으로서 살펴보자. 五臟은 胃氣가 있으므로 能動的으로 機能을 發한다. 만일 어느 한 臟이라도 胃氣가 斷切되어 能動的으로 機能을 發할 수 없다면 眞藏脉이 드러나서 죽음의 과정은 시작 된다. 『陰陽別論』에 의한다면 그 과정은 肝에서는 18日, 心 9日, 脾는 4日, 肺는 11日, 腎은 7日이 소요 된다. 하지만 『黃帝內經 太素』에 의하면 肝은 9日, 心도 9日, 脾는 4日, 肺는 10日, 腎은 5日이 되고⁸⁾ 『平人氣象論』에서는 五行相剋으로 說明하여 肝은 庚辛日에, 心은 壬癸일, 脾는 甲乙日, 肺는 丙丁日, 腎은 戊己日도 적고 있다. 그러므로 生存期間은 일단 論外로 한다고 하더라도, 內經은 眞藏脉이 나타나면 死亡에 이르는 것은 非可逆的인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대하여 『傷寒論』의 '灸甘草湯'이 代脉을 治療하므로 脾의 眞藏脉은 可的이다 라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內經』에서의 代脉은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軟弱한 脉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根結』에서의 에서 나오는 代脉이다. 『傷寒論』의 代맥은 『根結』의 代脉과 通하는 것이지 脾의 眞藏脉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眞藏脉이 나타나면 非可逆的으로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며, 조만간 五行相剋에 의하여 眞藏脉이 드러난 臟을 他臟이 克하게 되고, 마지막 죽음이 完成되는 순간은 「毛折, 乃死」로 표현하고 있다.⁹⁾ 이는 肺가 皮毛를 主管하므로 呼吸이 멈추는 것으로 이해되고 西洋醫學의 心肺機能死와 通한다.

하지만 人工呼吸器에 의하여 被動的으로 死亡判定을 내리지 못하는 西醫와는 달리 胃氣가 없으므로 能動的으로 呼吸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의 完成으로 본다. 즉 人間이 主體가 되어 能動的으로 天氣와 地氣를 받아들이고 내어주지 못하므로, 天地人의 分離 상태이다. 하지만 이를 죽음의 完成시점, 즉 死亡判定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보다 낮은 차원인 五臟六腑, 濟絡이나 西洋醫學의 細胞등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는 生, 長, 壯, 老란 죽어가는 細胞보다 새로이 生成되는 細胞가 더 많은 것이고 老는 생겨 나는 것보다 죽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死亡判定이란 결국 仁間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더 많은 研究가 진행될 것도 지금 論하고자 하는 바는 死亡判定에 있는 것이 아니며 죽음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韓醫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人工呼吸器나 臟器利殖, 冷凍人間 등 많은 方法이 있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方法들이 개발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하는 것이 가치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때 죽음이 삶의 完成과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지금 眞藏脉이 나타나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삶을 不完全하게 살아서 한 臟만이 먼저 죽게 되므로써 他四臟의 生사에 關係없이 한 個人이 죽게 되는 것이므로 분명

삶을 파괴하는 죽음이다. 그런데도 이 죽음이 非可逆目인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避할 수 없는 것이라며, 非正常的인 것을 正常的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治療이므로 破壞的인 죽음을 完成과정으로 만들면 안될 것이다. 곧 남겨진 시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죽음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古典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춘향전에서도 이러한 思考를 읽을 수 있다. 춘향은 변 학도에 대한 怨과 이도령에 대한 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춘향에게 중요한 것은 怨을 갖는 것보다 삶에 대한 恨을 풀어서 삶을 完成시키는 것, 죽음을 삶의 完成과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파괴적인 죽음은 미리 피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단 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죽음을 삶의 完成과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新設된 '호스피스(임종간호)'과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호스피스과는 1987年 3월에 강남 성모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개설되었으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위원회가 87年 9월 1日부터 88年 1月 10日까지 47명의 자원봉사자와 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거쳐 1月 15日 수료식을 가졌다.

호스피스 활동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의 활동대상은 의사의 진단으로 더이상 의학적 치료가 不可能하다고 판단된 臨終단계의 환자 및 그 가족들과 친지가 모두 포함된다. 목표는 대상자에게 진실을 알려 주어서 삶을 정리하고 남은 생애를 더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하고 평화로운 죽음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9)

Ⅲ . 結 論

人間은 能動的으로 自然과 感應하면서 完成되어져 가는 存在이며, 자연의 變化에 順應할 때 生, 長, 壯, 老, 死 의 다섯과정을 100年 또는 120年 정도에 걸쳐게 된다.

이러한 죽음은 순간적 사건도 아니고 病的상태도 아니다.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삶의 完成과정이고, 건강의 기준이 된다. 이 때에는 산다는 것이 오히려 귀찮은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것이 養生이며 醫學의 最高理想이다.

非正常的인 죽음은 삶의 파괴과정으로서 恐怖의 대상이며, 미리 피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삶의 完成과정이 되도록 승화되어야 한다.

醫學도 이를 도와주는 方向으로 設定되어야 하며, 臨終간호가 一例가 된다.

註)

1)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夫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

2)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

- 3) 金 忠烈. 中國哲學 序說 (中國學論叢 第1輯.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84)
- 4) 『衝氣失常 第五十九』: 「人年五十已上爲老, 二十已上爲壯」
- 5) 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太嗇之嗟, 凶.
- 6) 大宗師: 「夫大塊載我以形, 勞我以生, 佚我以老, 息我以死.
故善吾生者, 乃所以善.
- 7) 『本神』 「肝氣虛則恐, 實則怒.
心氣虛則悲, 實則 笑不休.
- 8) 卷三陰陽: 陰陽雜說
- 9) 『玉機真藏論篇』 「真脾脉至, 弱而乍數乍疏, 色黃青不澤, 毛折, 乃死.
諸真藏脉見者, 皆死不治也.

Ⅳ. 參 考 文 獻

1. 黃帝內經
2. 黃帝內經 太素
3. 周 易
4. 莊 子
5. 論 語
6. 金 忠烈: 中國哲學 序說 (中國學論叢 第1輯)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84.
7. 카톨릭 대학보. 1987. 11. 27. (全)